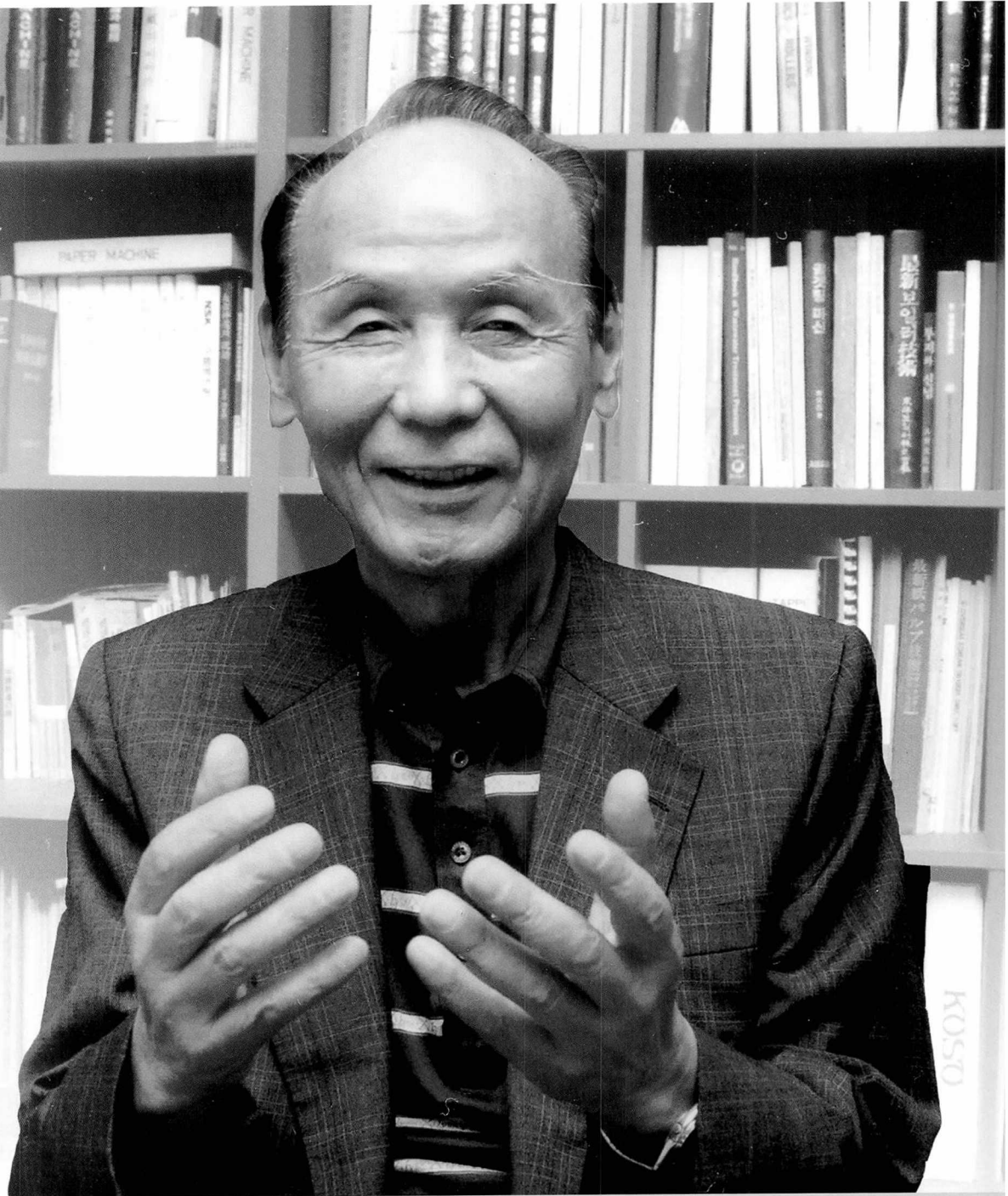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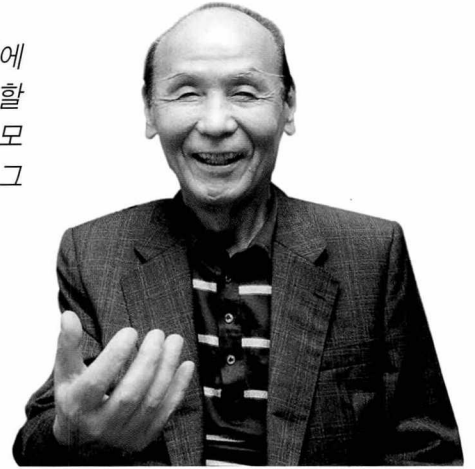


“ 제지기술인의 길 반세기
이젠 단체장으로 보답할 차례 ”



한국제지기술인협회가 지난 3월26일에 설립됐다. 이를 통해 제지기술인들의 숙원사업의 하나가 해결된 셈이다. 전국의 제지기술인들이 모여 1971년에 설립한 한국종이펄프기술협회가 학술단체인 한국펄프종이공학회로 탈바꿈하고 1990년을 전후해 설립이 추진됐던 제지기술인들의 모임이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잊혀져 갔던 과거를 딛고 일어난 제지기술인들만의 모임인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김순철(한국지기공사 사장) 한국제지기술인협회 초대 회장과의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다.

●●● 한국제지기술인협회는 제지기술인들만의 모임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친목도모와 정보교류 확대가 1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년에 2회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생각입니다. 물론 사안별로 이사회나 회장단모임을 가짐으로써 그 때 그때 필요한 모임과 행사도 준비할 것입니다.



한국제지기술인협회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바랍니다.

제지기술인협회는 제지산업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치고 연구, 발전시켜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 회원은 100여명이고 지난 3월26일에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펄프 종이공학회라는 모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학자들을 위한 학술단체입니다. 또한 이 학회는 1971년에 미국의 펄프 및 종이산업 기술협회인 TAPPI(Technical Association Pulp and Paper Industry)를 참고하여 설립한 한국종이펄프기술협회의 후신입니다. 처음에는 제지기술인들을 위한 모임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운영자금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다 결국 학회로 개편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제지기술인들은 순수 협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일례로 약 15년 전인 1990년을 전후해 제지기술인들을 위한 모임을 준비한 적이 있는데 이때도 설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무산됐습니다. 이번에 비로소 협회라는 명칭을 걸고 문을 열게 됐는데 앞으로 멋지게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지기술인협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지기술인들은 대체로

그 직종을 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이를 만드는 과정은 거대한 기계가 운영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개인보다는 팀이나 그룹의 성과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 명의 기술인들이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그 기술로써 독립하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장치산업으로서 그만큼의 자본력을 갖기도 쉽지 않죠. 또한 기술이 화학분야나 일반 제조분야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지만 종이제조 과정만의 독특한 특징이 강해서 다른 산업으로의 전직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제지기술인이 되면 회사를 옮기는 경우는 있어도 직종까지 바꾸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제지 신기술이 도입된 지 100여년이 지났지만 제지기술인만의 모임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수성을 가진 제지기술인들만의 모임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나라 제지기술도 이미 세계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지산업은 우수한 품질로 정평이 난 한지의 유구한 역사는 물론이고 소위 양지라는 제지 신기술이 들어 온지도 100여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연간 생산량이 1천여만 톤으로 세계에서 10위

권에 속하고 1인당 종이 소비량도 220kg으로 세계 20위권에 속합니다. 또한 질적인 면에서도 꾸준히 발전하여 세계 최대의 설비와 최신 시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여 높은 품질의 종이를 생산, 세계 각국에 수출함으로써 대표적인 내수 업종에서 이제는 당당히 수출산업 대열에 끼어들었습니다. 국내 산업이 IT,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 등에서 급팽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지산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높아 부가가치 생산에서 2.2%, 고용 면에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지기술이 발달하는데 제지기술인들의 역할이 무척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국내 제지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2만 여명으로 그동안 거쳐 간 사람을 합하면 수만 명도 넘을 것이며 제지기술인만도 만여 명이 될 것입니다. 이 많은 제지기술인들이 있음에도 우리 제지기술인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뜻있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모임이 없는 실정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나 포장기술인협회와 같이 거의 모든 분야의 기술자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제지기술인만이 공식적인 모임 하나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사별 퇴직자 모임이나 한정된 친목



한국제지기술인협회 회장단이 최근 모임을 갖고 협회보 창간 준비 등의 안건에 대해 회의하고 있는 모습

모임은 있지만 전체 기술인들의 모임은 몇 번의 시도는 있었음에도 여러 사정으로 존속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더 협회의 필요성이 대두됐을 것 같습니다.

신제지 산업이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지 기술인 1세대들이 이미 타계하시거나 생존하시는 분도 점차 연로하시어 개척시절의 역사를 알고 싶어도 물어볼 수가 없고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아 찾아 볼 수도 없으며, 일제 강점기 시절은 물론이고 광복 후의 귀중한 자료들도 급속한 공장 개편에 따라 모두 유실되어 보존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회원 상호간의 친목은 물론이고 새로운 기술의 소개와 보급, 기술 정보의 공유, 제지기술인의 인명록 편찬, 제지기술 사료의 수집 보존 등 공익사업과 기술인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각종 용역 사업을 수행할 공식적인 기구를 설립할 때가 되었다는데 의견이 집중됐습니다. 이에 여러 제지인들이 뜻을 같이하여 한국제지기술인협회 설립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협회가 제일 먼저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지기술인들만

의 모임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친목도모와 정보교류 확대가 1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년에 2회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생각입니다. 물론 사안별로 이사회나 회장단모임을 가짐으로써 그때 그때 필요한 모임과 행사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 정보 전달 및 교류를 위해 출판물 발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창간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지 선진국의 우수 잡지 등에 소개된 기술자료 등을 번역한 자료도 단행본으로 1년에 1회 정도 출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제지기술인들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명사전 등을 편찬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과제입니다.

친목도모와 자료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모임에 친목은 기본입니다. 수십년간 제지기술인으로 살아오다 은퇴하면 대부분 연락이 두절되고 제지기술 현장과 단절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해주는 단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어디에 가도 제지기술인 선배들의 자료가 남아있는 곳은 없습니다. 지난 100여년간 제지회사들은 부침의 연

속이었는데 그 가운데 제지기술인들은 그냥 잊혀져가는 존재였습니다. 현상태라면 이 문제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제지역사는 어떠했으며 그속에서 우리 기술인들이 해온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만큼 이들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하게 되면 후배 제지 기술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초대회장으로서 책임감이 크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고 싶어서였기보다는 꼭 필요한 단체이고 누군가는 맡아야 한다는 당위 때문에 회장직을 수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임기동안에는 한국제지기술인협회가 빨리 자리를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지기술인으로서 50년 넘게 살아오며 가장 뜻 깊었던 일은 그런대로 꾸준히 집필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필활동은 책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지만 정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협회장은 단체장으로서 보다 능동적으로 활동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50여년 한 길을 걸어온 제지기술인이 이제는 단체장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한국제지기술인협회가 잘 되도록 바라며 최대한 힘을 보탬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김순철 회장은 전북공대 화공과를 졸업하고 복선제지(현 세풍), 무림제지, 한국수출포장 등에서 근무했다. 한국종이 펄프기술협회 창립준비위원, 한국종이 펄프공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제지사학회(IPH) 회원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Paper Machine, 골판지의 제조이론과 응용, 원료의 고해, 종이의 제조이론과 응용, 종이야사기, 골판지 기술, 종이역사 등이 있다.)

〈조갑준 차장〉